

광주~나주·화순간 광역철도 노선 단일안 합의

광주시·전남도·나주시·화순군, 정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공동 노력
상무역~나주~평동역, 소태역~화순읍...혁신도시·화순전대병원 교통편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주시, 화순군과 함께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단일안(노선도)에 합의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 지하철(평동·상무·소태)에 인근의 나주·화순 등을 광역철도로 연결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 고속전철, 나아가 장대 달빛내륙철도까지 연결함으로써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연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목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그동안 광역철도 2개 노선

에 대해 국가계획반영을 건의하고, 상무역에서 나주를 거쳐 평동역으로 순환 연결하는 나주·광주 노선(41.8km)과 소태역에서 화순읍을 연결하는 화순·광주 노선(12.4km)을 구체화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나주시, 화순군의 의견을 반영한 전남도 노선안에 대해 광주시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광주·전남 광역철도 단일 노선안이 마련됐다. 향후 국가계획 반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은 광주 상무역에서 출발해 서광주, 나주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을 거쳐 다시 동신대와 노안, 광주 평동역까지 연

■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노선도



결하는 구간이다. 평동역과 상무역은 지하철이 연결돼 사실상 순환노선이 구축되는 셈이다. 나주역에서 영산포까지

지는 지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노선은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 지역들이 철도로 연결될 경우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화순전대병원, 생물의학산업단지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광주·전남 단일 노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산업경영인' 125명 선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어촌 발전을 선도할 수 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어업인후계자 107명, 우수경영인 18명 등 총 125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36명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역 수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350명의 36%를 차지한 결과를 이뤘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은 청장년 발굴, 신규 어업인력 유입 장려와 함께 기반 조성 및 노후시설·장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어업경력 없거나 10년 이하인 어업인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의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영중이거나 해양수산 신진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일까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분야는 어선어업과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물유통, 염제조업 등이다.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3억원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9 광주수영대회' 유산 한국수영진흥센터 본격 추진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24년 준공
370억원 들여 지상 3층 규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 사업 중 하나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지난해 11월 최종 통과됨에 따라 최근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국비 102억원, 시비 238억원, 민자 30억원 등 총 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755㎡,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 풀과 스포츠 기념관,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거쳐 남부대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승인, 남부대·광산구와의 건립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수영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 설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 등 시민 대상 생중 수영 기법 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성공적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선수 육성 및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적인 교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8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제61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배를 하고 있다.

대구 2·28 기념일에 '광주 병상 연대' 재조명

이용섭 시장 기념식 참석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에 '광주의 병상 연대'가 재평가됐다.

지난해 3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광주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 확진자들을 치료하겠다고 나선 '병상 연대'가 2·28 기념식에서 재조명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

석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의 교차 방문 전통을 이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 확진자들에게 광주가 손을 내민 지 1년 되는 날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 시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2·28, 5·18 기념식을 대구와 광주가 교차 참석해온 전통이 이어져 기쁘다"며 "대구에서는 518번, 광주에서는 228번 시대버스가 달리는 등 각 분야 교류와 협력도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

됐지만, 바로 다음날인 3월1일 대구에 병상연대를 제안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병상연대가 확산됐다"고 회고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의 병상 연대 제안이 정말 고맙고 이를 계기로 달빛동맹이 더 공고하게 굳어졌다"고 화답했다.

광주공동체는 101주년 3·1절 기념일인 지난해 3월 1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달빛동맹" 형제 도시 대구를 돕기 위해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를 받아들여 광주에서 치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 확진자 32명이 광주에서 치료받고 돌아갔으며, 일부는 편지와 선물로 의료진과 시민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최관일 기자 cki@

전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전남도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1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과 실증단지 등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충권 도덕면 가부리 일원에 33.3ha 규모로 조성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생 52명을 선발해 20개월간 이론부터 실습·경영까지 장기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까지 156명의 청년농을 도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또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과 검증·실증, 스마트팜 내 환경 생육 데이터 등을 수집·저장·분석하고 이를 도내 농가들이 영농정보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은 올해 20억원이 투입되며, 시설 하우스에서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남 도내 스마트팜 농가는 241농가 143ha로,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14년도 10ha에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팜 농가 증가의 원인은 기존 농장 대비 생산성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영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희영)